

광주FC 젊은 피 정호연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4경기 모두 출장 중원 책임져... '헤트트릭' 아사니 '이달의 선수상' 도전 K리그1 광주 2승 2패 5위...4월 1일 홈서 수원FC 상대 연습 잇기 나서

광주FC의 미드필더 정호연이 2023시즌 첫 '이달의 영플레이어상' 주인공이 됐다.

올해 첫 '레모나 이달의 영플레이어상'은 1라운드부터 4라운드까지 총 4경기를 평가 대상으로 했으며 정호연·엄지성(이상 광주), 이태석(서울), 황재원(대구), 양현준(강원) 등 5명이 후보에 올랐다.

영플레이어상 후보는 K리그1 선수 중 ▲한국 국적 ▲만 23세 이하(2000년 이후 출생) ▲K리그 공식경기 첫 출장을 기록한 연도로부터 3년 이하(2021시즌 이후 데뷔) 조건을 모두 충족하고, 해당 월의 소속팀 총 경기시간 중 절반 이상 출장한 선수를 대상으로 선정된다.

연맹 기술위원회 산하 기술연구그룹(TSG) 위원들의 논의 및 투표를 통해 정호연이 최종 수상자가 됐다.

정호연은 올 시즌 광주가 치른 4경기에 모두 출장해 팀의 중원을 책임졌다. 또 1라운드 수원전, 4

라운드 인천전에서는 도움도 기록했다.

2000년생인 정호연은 광주 U-18팀인 금호고를 졸업한 뒤 단국대를 거쳐 지난해 광주에 입단했다. 프로 첫해 36경기에 나와 1골 4도움을 올리는 등 좋은 활약으로 팀 우승에 기여했다.

올 시즌에도 개막전부터 선발 출장해 왕성한 활동량을 바탕으로 광주공격의 연결고리 역할을 하고 있다.

정호연은 오는 4월 1일 오후 4시 30분 광주축구 전용구장에서 열리는 5라운드 수원FC와의 홈경기에 앞서, 트로피와 상금을 받는다.

올 시즌 K리그 첫 '헤트트릭' 주인공인 광주 아사니는 '이달의 선수상'에 도전한다.

연맹은 연맹 TSG기술위원회의 1차 투표(60%)를 거쳐 아사니와 함께 이진현(대전), 이호재(포항), 주민규(울산)를 'EA K리그 이달의 선수상' 후보로 선정했다.

최종 수상자는 1차 투표에 이어 4월 2일까지 진

행되는 K리그 팬 투표(25%)와 EA FIFA Online 4(이하 FIFA 온라인 4) 유저 투표(15%)를 합산해 결정된다.

아사니는 1라운드 수원전서 팀의 첫 골을 장식한 데 이어 4라운드 인천전 헤트트릭을 포함, 4경기 4골로 팀의 초반 상승세를 이끌었다.

이진현은 1골 2도움의 활약으로 팀의 2승 2무 패행진의 중심에 있다. '특급조커' 이호재는 대구와의 개막라운드에서 후반 39분과 45분 연속골로 3-2 승리를 이끌었고, 4라운드 강원전에서 후반 교체 투입돼 동점골을 기록했다. 제주에서 울산으로 동지를 옮긴 주민규는 4경기 2골 1도움을 기록하며 존재감을 보여줬다.

수상자에게는 트로피가 수여되며 이달의 선수상 패치 부착, FIFA온라인4 플레이어카드에 '이달의 선수' 표시 등의 혜택이 주어진다.

한편 1년 만에 K리그1으로 복귀한 광주는 개막 후 4경기에서 2승 2패(승점 6·6득점 4실점)를 기록하며 5위에 자리하고 있다.

특히 지난 4라운드 인천과의 홈경기에서는 세 골을 몰아 넣은 아사니의 활약을 앞세워 5-0 대승을 장식했다.

/김여울 기자 wool@kwangju.co.kr



광주FC가 4월 1일 오후 4시 30분 안방에서 수원FC를 상대로 K리그1 5라운드 경기를 갖는다. 사진은 앞선 4경기에서 모두 출전해 좋은 활약을 하며 '영플레이어상'을 수상한 정호연(오른쪽). <광주FC 제공>



송원대가 지난 29일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주짓수팀 창단식을 열었다. 최수태 송원대 총장, 김영삼 광주시체육회 사무처장, 대한주짓수회 체인북 사무처장, 광주주짓수회 박종훈 회장 등이 선전을 다짐하고 있다. <송원대 제공>

송원대 전국 첫 주짓수 팀 창단

단장 최수태 총장·감독 박경민...대학스포츠 활성화 기대

송원대학교가 전국에서 처음으로 주짓수팀을 창단했다.

송원대(총장 최수태)는 지난 29일 송원대 학생회관 대강당에서 주짓수 팀 창단식을 열었다.

송원대는 지방체육 균형발전과 대학스포츠 활성화, 엘리트 체육의 저변확대를 위해 팀을 꾸렸다.

선수단은 최수태 총장을 단장으로 부단장에 스포츠지도학과 홍성봉 교수, 박경민 감독과 선수 등 14명으로 구성됐다.

박감독은 2016년 서울오픈 어덜트-76 노기 금메달, 2019년 포울 주짓수대회 브라운벨트 어덜트-76체급 랩솔 금메달 등을 따내는 등 선수 출신 감독이다.

송원대는 기존 세팍타크로, 야구, 배드민턴, 정구팀에 주짓수팀 등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데 최선을 다할 방침이다.

선수 육성은 물론 각종 국내외 대회에서 학교의 명예를 높이고 대한민국 위상을 높이기 위해 적극 노력할 방침이다.

최수태 총장은 "고마운 분들의 노력으로 전국 최초로 송원대학교에 주짓수팀이 창단하게 됐다"며 "전국대회, 세계대회에서 학교와 국가의 위상을 높여주시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지영 트레이드 파문' 뒤늦게 대책 마련

한국배구연맹 "구단간 계약 따른 선수 출전 금지 인정 안돼"

한국배구연맹이 '오지영 트레이드 파문'과 관련, 뒤늦게 '구단간 계약에 따른 선수출전 금지'를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한국배구연맹은 최근 제19기 제4차 이사회와 임시총회를 열고 이같이 의결했다.

이에 따라 선수 등록규정(이적선수의 등록) 가운데 '이적의 등록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시 공시가 불가하다'는 규정 '선수권익 보호 및 구단 간 공정한 경쟁을 위해 구단 간 계약(합의)에 따른 선수 경기 출전 금지 등'의 조항을 신설했다. 광주 AI 페퍼스와 GS칼텍스간 계약 갈

은 사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두 구단은 지난해 12월 리베로 오지영의 이적 과정에서 '전 소속 팀 상대 경기 출전 불가' 조항에 합의했다.

GS칼텍스는 '즉시 전력인 오지영을 이같이 내주는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다'며 '오지영을 올 시즌 남은 GS칼텍스전에 투입하지 않는다'는 조항 삽입을 요청했고, 페퍼스가 수용했다.

배구연맹도 뚜렷한 문제가 없다며 이를 승인했다.

하지만, 팬들은 '승부조작', '선수권리 박탈',

'스포츠정신위배'라며 반발했다.

문체부도 해당 조항에 문제 소지가 있다며 개선 사항을 마련하라고 권고했다.

KOVO는 문체부의 권고에도 "올 시즌을 마친 뒤 규약 수정 등 개선점을 찾겠다"면서도 "이미 발생한 오지영 트레이드는 소급적용이 어렵다"고 밝혔다.

해당 구단도 서로 계약을 존중해 오지영을 시즌 종료까지 3경기에 내보내지 않았다. 페퍼스는 오지영이 출장하지 않은 3경기에서 1승 2패를 기록했다.

/윤영기 기자 penfoot@kwangju.co.kr



오지영

니클라우스 "골프 메이저 중 마스터스가 꼴찌"

"선수권대회 아닌 초청대회" 플레이어도 "역사 짧다"며 동조

4개 메이저 골프 대회 가운데 으뜸은? 골프 팬과 골프 선수들 사이에 오랜 논쟁거리다.

역사와 전통의 디오픈, 경기력의 극한 시험 무대 US오픈, 프로 선수들의 경연장 PGA 챔피언십, 그리고 신비로운 꿈의 무대 마스터스 등 4대 메이저대회는 우열을 가리기 어렵다.

다음달 7일(한국시간) 개막하는 마스터스를 앞두고 미국 골프닷컴이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마스터스가 압도적으로 미국 골프 애호가들의 사랑을 받고 있다.

골프 팬 86.2%가 가장 좋아하는 메이저대회로 마스터스를 꼽았다.

US오픈은 6.6%, 디오픈은 6.2%에 불과했다. PGA 챔피언십은 고작 1%의 지지만 받았다.

78%는 마스터스를 직접 관람하는 걸 '버킷리스트'에 올렸다고 답했다.

마스터스 시청률도 다른 대회보다 늘었다. 마스터스의 매력은 아무래도 '신비 마케팅'에서 비롯됐다. 아무나 가볼 수 없는 '금단의 땅' 오거스

타 내셔널 골프클럽은 마스터스 때나 대중들에게 속살을 내보인다. 출전 선수가 100명 이하라 압축된 우승 경쟁도 팬들을 흡인하는 요소다.

그러나 마스터스 최다 우승자(6승)로 마스터스 시타를 맡는 잭 니클라우스(미국)와 역시 마스터스 시타자인 마스터스 3승의 게이 플레이어(남아프리카공화국)의 생각은 다르다.

플레이어는 최근 스포츠 매거진 인터뷰에서 "4개 메이저대회에서 으뜸은 디오픈이고, 두 번째는 US오픈, 세 번째는 PGA 챔피언십이다. 마스터스는 꼴찌"라고 말했다.

마스터스를 꼴찌로 평가한 이유를 플레이어는 "가장 역사가 짧기 때문"이라면서 "마스터스는 전통과 역사의 깊이가 모자란다"고 단언했다.

디오픈은 1860년, US오픈은 1895년, PGA 챔피언십은 1916년에 시작됐고 마스터스는 1934년에 첫 대회를 열었다.

니클라우스도 플레이어와 똑같이 마스터스를 4개 메이저대회에서 맨 마지막으로 꼽았다.

니클라우스는 "마스터스는 선수권대회가 아니다. 아무리 훌륭한 대회라도 선수권대회보다 앞설 순 없다"고 마스터스를 최하위로 꼽은 이유를 설명했다.

/연합뉴스

LIV 골프 들어올 땐 맘대로, 나갈 땐 불가능?

탈퇴 위약금 최대 4배 물어야

'들어올 때 마음대로, 그러나 나가는 건 불가능'.

LIV 골프로 옮긴 선수들이 LIV 골프를 떠나 미국프로골프(PGA) 투어로 복귀하고 싶어도 거액의 위약금 때문에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포츠일러스트레이티드는 LIV 골프 선수들은 탈퇴하면 받은 계약금의 2배에서 4배까지 물어내야 하는 계약 조건에 사인했다고 30일(한국시간) 보도했다.

필 미켈슨, 더스틴 존슨, 브룩스 켈퍼, 브라이언 디쇼보, 패트릭 리드(이상 미국) 등 메이저

대회 우승자들은 대부분 1억 달러 안팎의 계약금을 받았다.

만약 이들이 LIV 골프에서 몸을 빼려면 최대 4억 달러 안팎의 거액을 반환해야 한다는 뜻이다.

2억 달러의 계약금을 받은 미켈슨은 최대 8억 달러, 한국 돈으로 1조원이 넘는 돈을 토해내야 PGA 투어로 돌아갈 수 있다.

아무리 LIV 골프 대회 상금이 많아도 상금으로 번 돈으로는 도저히 위약금을 충당할 수 없기에 선수들은 LIV 골프에 매달릴 수밖에 없다.

한편 LIV 선수들의 계약서에는 선수에 따라 1년에 10개에서 14개 대회에 반드시 출전하도록 명시됐다.

/연합뉴스

LOTTE CINEMA | 증장로관

단체 및 대관문의 1544-8855

- 1관 스즈메의 문단속, 나의 연인에게
- 2관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3관 웅남이
- 4관 스즈메의 문단속
- 5관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 6관 스즈메의 문단속
- 9관 던전 앤 드래곤: 도적들의 명예, 오토라는 남자, 블루 서열, 같은 하늘을 보고 싶어
- 7관 새네커틀 소울메이트, 샷건 웨딩
- 8관 새네커틀 더 퍼스트 슬램덩크, 샷건 웨딩

광주문화예술회관 문의 062)613-8233

2023년 국악상설공연

일시 : 2023-04-01(토) ~ 2023-04-30(일)

매주 수요일-일요일 오후 5시

장소 : 광주공연마루

문의 : 062)613-8379/8372

광주시립발레단 기획공연 발레상설공연서트 II <단원안무전 Ballet Curation>

일시 : 2023-03-31(금) 19:30

2023-04-01(토) 15:00

장소 : 빛고을시민문화관

문의 : 062-415-5502 / 062-522-8716